

# 국어 음운사 연구를 위한 기본 개념\*

이진호\*\*

## I. 머리말

국어 음운사 분야는 국어 연구의 초창기부터 오랜 기간 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 과정에서 여러 기본 개념들이 확립되고 발전되었다. 그런데 국어 음운사 연구가 음운 현상보다는 음운 체계에 더 많은 관심을 두다 보니, 음운사 연구와 관련된 개념들도 그 방향으로 집중된 감이 없지 않다. 이 글에서는 음운 체계보다는 음운 현상, 즉 음운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어 음운사 연구와 관련된 세 가지 기본 주제들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 번째 주제는 통시적 음운 변화의 대상이다. 이것은 음운 변화가 적용되면 무엇이 바뀌는가와 관련되며 음운 변화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제는 통시적 음운 변화의 발달 단계이다. 모든 음운 변화는 새로 생긴 후에 세력을 확장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그 단계가 음운 변화에 따라 차이가 난다. 세 번째는 음운 변화의 적용 층위이다. 음운론에서의 층위는 이론적으로 가정한 개념이지만 음운 변화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형식적인 주제들을 통해 국어 음운 변화의 속성을 좀 더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

\* 이 글은 2011년 국어학회 겨울학술대회 집중강좌의 강연 원고를 다듬은 것으로, 이진호(2008)의 2장 중 일부를 발췌 및 보완했음을 밝혀 둔다.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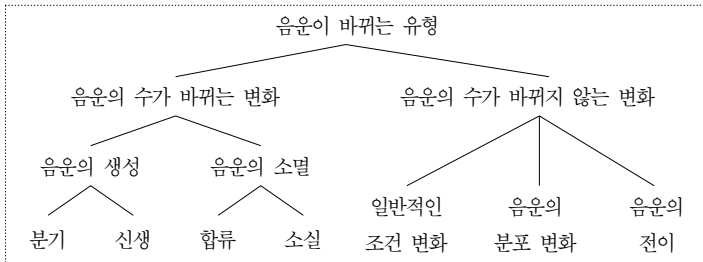
## II. 음운 변화의 대상

음운 변화는 음운이라는 단위에 직접 적용되어 한 음운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어 준다. 그런 점에서 음운 변화의 대상이 음운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음운 변화의 결과 단순히 음운이 변한다고 보는 입장 이외에 음운들 사이의 대립 관계가 변한다고 보는 입장이나 음운 대신 음운 규칙이 변한다고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sup>1)</sup> 즉 음운 변화에 의해 바뀌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음운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운들의 대립 관계 또는 음운 규칙일 수 있다는 것이다.

### 1. 음운의 단순한 변화로 보는 입장

음운 변화는 음이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은 전통 문법에서 취하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음운 변화의 유형을 대체로 다 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음운의 수가 늘어나는 변화에는 분기와 신생이 있다. 분기는 한 음

1) 최적성 이론에서는 음운론적 제약의 위계가 바뀐다고 보기도 한다. 여기서는 음운론적 제약의 변화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진호(2008)의 1.3.과 2.3.1.을 참고할 수 있다.

운의 변이음 관계이던 음성들이 서로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변화 유형이고 신생은 존재하지 않던 음성이 새로이 음운으로 자리 잡는 변화 유형이다. 분기나 신생의 예를 찾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 분기의 경우 이전 시기의 변이음 양상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이 결정적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신생의 경우는 갑자기 새로운 음이 출현하면서 음운으로 확립된다는 상황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다.<sup>2)</sup>

국어 음운사에서 음운이 생성된 변화로는 경음의 발생 및 전설모음 ‘ㄱ, ㅋ, ㆁ, ㆁ’의 성립을 들 수 있다. 경음이나 전설모음 ‘ㄱ, ㅋ, ㆁ, ㆁ’는 음운으로 정착되기 전에 다른 음운의 변이음 단계를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 가령 경음은 어중의 특정 조건에 놓인 평음의 변이음으로 나타나고, 전설모음 ‘ㄱ, ㅋ, ㆁ, ㆁ’는 단모음으로 바뀌기 전에 ‘ㄱ, ㆁ, ㆁ, ㆁ’의 변이음으로 실현되던 시기가 있었을지 모른다.<sup>3)</sup> 그런 점에서 이 음운들의 생성은 신생보다는 분기로 분류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음운의 수가 줄어드는 변화에는 합류와 소실이 있다. 합류는 존재 하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변화이고, 소실은 한 음운이 그냥 사라지고 마는 변화이다. 합류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합류되는 양상에 따라 세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가령 ‘A’라는 음운이 모두 ‘B’라는 하나의 음운으로 변할 수도 있고, 이와는 달리 ‘B, C, …’ 등 여러 음운으로 변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A’와 ‘B’의 두 음운이 ‘C’라는 제3의 음운으로 합류할 수도 있다. ‘빙’의 변화를 ‘β > w’라는 단일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것은 첫 번째 유형의 합류에 해당한다.<sup>4)</sup> ‘으’가 환경에 따라 여러 모음으로 바뀐 것은 두 번째 유

2) 신생은 주로 외국어의 영향에 의한 경우가 많다. 자국어에는 없던 새로운 음이 외국어를 통해 수용되고 이것이 다시 음운으로 확립되는 것이다.

3) 전설모음 ‘ㄱ, ㅋ, ㆁ, ㆁ’의 경우 ‘ay, əy, oy, uy > ey, ey, öy, üy > e, e, ö, ü’의 단계를 거쳤을 가능성이 제안된 적도 있다. 이때 ‘ey, ey, öy, üy’의 ‘e, e, ö, ü’는 ‘ㄱ, ㆁ, ㆁ, ㆁ’가 반모음 ‘y’ 앞에서 실현되는 변이음이 된다.

4) 그러나 ‘빙’의 변화 공식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없지 않았다. 자세한 것

형의 합류라고 할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진행 중인 ‘ㅞ’와 ‘ㅟ’의 합류는 두 모음이 어느 한 쪽 또는 기존의 다른 모음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서 점에서 세 번째 유형의 예에 가깝다.<sup>5)</sup>

한편 현대국어의 많은 방언에서는 단모음 ‘ㅞ, ㅟ’가 이중모음 ‘we, wi’로 바뀌고 있다. 이 경우 하나의 음운이 두 개의 음운으로 바뀌면서 소멸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한 음운이 기존의 다른 음운으로 변했다는 점에서는 합류에 속한다. 변화의 결과가 일관된다는 점에서 첫 번째 유형의 합류로 분류할 수 있다.

소실은 모음의 변화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모음이 음운 체계에서 사라지면서 단순히 소실을 겪게 된다면 해당 모음이 들어 있는 음절이 모두 유지될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모음이 소실되는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어 음운사에서 소실의 예로는 ‘ㅏ’의 변화를 들 수 있다. ‘ㅏ’은 여러 방언에서 다른 자음으로 바뀌는 대신 그냥 탈락하는 변화를 주로 겪었다. 중세 국어의 성조가 중앙어에서 사라진 것도 소실로 분류할 수 있다. 성조가 없어지면서 음장이 그 역할을 이어받았는데, 음장은 성조가 운소로 기능하던 시절에도 존재했으므로 성조의 소멸은 음운의 소실에 가깝다.

음운의 수가 바뀌지 않는 음운 변화에는 일반적인 조건 변화, 음운의 분포 변화, 음운의 전이가 있다. 일반적인 조건 변화는 일정한 환경에서만 음운이 바뀌므로 결코 음운의 수에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다. ‘유음화’나 ‘경음화’와 같은 음운 변화는 모두 여기에 속한다.

음운의 분포 변화는 음운이 나타나는 출현 환경의 변화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조건 변화가 적용되면 음운의 분포도 함께 변하지만 이런 경우는 조건 변화의 부수물에 불과하므로 제외해야 한다. 오로지 음

은 이진호(2008)의 2.3.1.1.을 참고할 수 있다.

5) 다만 ‘ㅞ’와 ‘ㅟ’의 합류는 이 두 모음과는 완전히 다른 제3의 단모음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ㅞ’와 ‘ㅟ’의 조음 영역이 겹치면서 둘 사이의 구분이 없어지는 변화를 거쳤을 뿐이다.

운의 분포 변화만 일어난 대표적인 예는 연구개 비음이 종성에만 올 수 있게 된 변화이다. 중세국어 시기에 음절의 초성과 종성에 모두 올 수 있었던 ‘ㅇ’은 다른 변화와 상관 없이 이후에 종성에만 올 수 있게 분포가 바뀌었다.<sup>6)</sup> 이것은 조건 변화의 결과가 아닌 순수한 음운 분포의 변화이다.

음운의 전이는 기존의 음운이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음운으로 바뀌는 변화이다. 중세국어 시기에 처음이었던 ‘ㄱ/ㅋ, ㄴ/ㄷ/ㅌ’이 각각 치조음과 경구개음으로 변한 것은 음운의 전이에 속한다. 이 변화는 처음 ‘ㄱ/ㅋ, ㄴ/ㄷ/ㅌ’이 소멸하고 치조음 ‘ㄱ/ㅋ’과 경구개음 ‘ㄴ/ㄷ/ㅌ’이 새로 생성된 결과가 아니라 존재하던 음운(처음)이 다른 새로운 음운(치조음, 경구개음)으로 바뀐 것이므로 음운의 전이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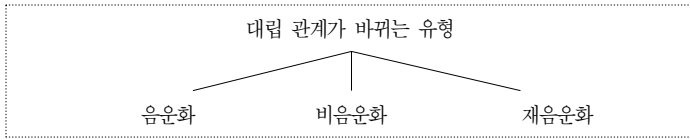
## 2. 대립 관계의 변화로 보는 입장

한 음운은 다른 음운과 대립 관계를 이루며 전체적으로 음운 체계를 이룬다. 따라서 음운의 변화는 그 음운이 다른 음과 맺고 있던 대립 관계에도 변화를 초래한다. 이처럼 음운 변화를 대립 관계의 변화로 해석하는 입장은 음운 체계를 중시하던 유럽의 구조주의 음운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음운 변화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6) 중세국어 시기에 연구개 비음 ‘ㅇ’이 음절 초성에 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바울’과 같이 어종의 초성에 ‘ㅇ’을 가진 단어가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상대 높임의 ‘-(으)이’와 같은 형태소가 존재했다는 것은 ‘ㅇ’이 음절 초성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준다. 다른 하나는 ‘스스이(스승+이)’와 같이 형태소 말음 ‘ㅇ’에 연결 표기가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2)



음운화는 대립 관계가 새로 생기는 음운 변화로 음운의 생성에 의해 일어난다. 음운화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대립 관계가 새로이 나타나는 경우와 이미 존재하던 대립 관계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가령 경음의 출현은 이전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던 ‘평음 : 경음’ 과 ‘경음 : 유기음’ 이라는 대립 관계를 새로 만들었다. 반면 근대국어 시기 이후에 전설모음 ‘ㄴ, ㄷ’ 가 생겨서 ‘ㄴ, ㄷ’ 와 원순성 유무에 의해 관계를 맺게 된 것은 그 이전 시기에 이미 ‘- : ㅌ, - : ㄱ’ 에 존재하던 원순성의 대립이 더 확대된 예이다.

비음운화는 존재하던 대립 관계가 사라지는 음운 변화로 음운의 소멸과 함께 발생한다. 비음운화는 존재하던 대립 관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와 존재하던 대립 관계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로 세분할 수 있다. 가령 중세국어 시기에 존재하던 유성마찰음 ‘ㅃ, ㅆ, ㅇ’ 의 소멸은 장애음 사이에 존재하던 ‘유성성’ 에 의한 대립 관계를 사라지게 했다. 반면 ‘-’ 의 소실은 기존에 존재하던 ‘설축(舌縮) : 설소축(舌小縮)’ 의 대립 또는 구축(口蹙), 구장(口張)의 대립을 완전히 사라지게 한 것은 아니고 대립의 적용 영역만 축소시켰다. 즉 ‘- : -, - : ㅌ, - : ㅌ’ 에서 보이는 대립 관계는 없어졌지만 ‘- : ㅌ, - : ㅌ’ 에 여전히 ‘설축 : 설소축’ 의 대립이 남아 있고 ‘- : ㅌ, - : ㅌ’ 에 구축과 구장의 대립이 남아 있는 것이다.<sup>7)</sup>

7) ‘-’ 가 모음들의 대립 관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 의 소실 이후 ‘설축’ 에 의한 대립 또는 ‘구장, 구축’ 에 의한 대립도 사라지거나 또는 변화를 입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 소실 이후 추가로 일어난 변화의 결과이지, ‘-’ 의 변화 자체가 기존의 대립 관계를 완전히 없애 버린 것은 아니다.

재음운화는 음운의 수적 변화 없이 음운들의 대립 관계가 바뀌는 음운 변화이다. 재음운화가 일어나면 이미 존재하던 어떤 대립 관계가 다른 대립 관계로 바뀌는 결과를 초래한다. 음운의 전이에 속하는 변화가 재음운화를 일으킨다. 가령 ‘A’ 라는 음운이 새로운 음운 ‘C’ 로 바뀌는 무조건적 변화가 일어난다면 ‘A’ 가 다른 음운들과 맺고 있던 대립 관계는 사라지고 ‘C’ 가 새롭게 기존의 음운들과 대립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런 변화는 음운의 수에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다만 음운들의 대립 관계에만 영향을 미친다.

국어에서는 중세국어의 치음 ‘ㅅ/ㅆ, ㅈ/ㅊ/ㅌ’ 이 현대국어에 와서 다른 조음 위치의 자음으로 바뀐 것을 재음운화로 분류한다. 이 자음들이 치음이던 시절에는 ㅅ-계열과 ㅈ-계열이 동일한 조음 위치이 되 조음 방식에서 구분되는 상당히 밀접한 대립 관계를 지녔다. 그렇지만 현대국어에서는 ㅈ-계열의 자음을 대신하여 오히려 ㄷ-계열의 자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 관계의 변화가 곧 재음운화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립 관계의 변화는 모두 대립 관계를 맺는 음운들의 직접적인 변화에 의해 초래되었다. 음운의 생성이나 소멸 또는 전이라는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각 음운의 대립 관계도 변한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대립 관계에 있는 음운들의 직접적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립 관계가 바뀔 수 있다. 이것은 근대국어 시기 이후에 ‘ㄱ : ㄴ’ 가 원순성의 유무에 따른 대립쌍으로 바뀐 현상이나 ‘ㅣ : ㅡ’ 가 전설성에 의해 대립하게 된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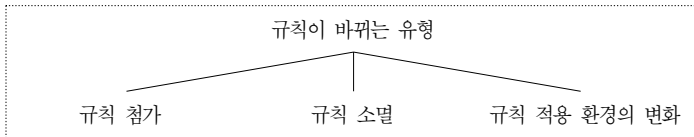
‘ㅣ’ 가 소멸하기 전에는 원순성 유무에 따라 ‘ㄱ’ 와 대립하던 모음이 ‘ㅣ’ 였다. 그 시기만 하더라도 ‘ㄱ’ 와 ‘ㅣ’ 는 아무런 대립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런데 ‘ㅣ’ 가 소멸하고 난 후 모음 체계가 조정되면서 ‘ㄱ’ 와 ‘ㅣ’ 가 새롭게 원순성에 의한 대립쌍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ㄱ’ 나 ‘ㅣ’ 에는 음운 변화가 직접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두 모음 사이에 새로운 대립 관계가 생성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음운화의 특이한 예로 볼 수 있다.

‘ㅣ : ㅡ’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ㅣ’와 ‘ㅡ’가 중세국어 시기에는 ‘설소축 : 설불축’과 같이 ‘설축’에 의한 대립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현대국어에서 보이는 ‘전설 : 후설’의 대립과는 성격이 다르다.<sup>8)</sup> ‘ㅣ : ㅡ’의 대립 관계가 오늘날과 같이 ‘전설 : 후설’에 의한 것으로 바뀐 이유는 ‘ㄱ, ㅋ, ㆁ, ㆁ’와 같은 다른 전설모음 계열들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ㅣ’와 ‘ㅡ’는 그 어느 쪽도 직접 변화하지 않았지만 다른 음운들의 변화 때문에 이전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대립 관계를 맺게 되었다. ‘ㅣ : ㅡ’는 이전의 ‘설소축 : 설불축’의 대립에서 ‘전설 : 후설’의 대립으로 바뀌었으므로 재음운화의 예라고 할 수 있다.

### 3. 규칙의 변화로 보는 입장

음운 변화를 음운 규칙의 변화로 보는 것은 생성음운론의 입장이다.<sup>9)</sup> 생성 이론이 기본적으로 문법을 규칙의 집합으로 보기 때문에 음운 변화 역시 규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규칙의 변화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3)



8) 대립 자체의 성격을 보더라도 ‘설축’에 의한 대립은 ‘설축 : 설소축 : 설불축’의 세 가지 부류가 구분되지만 ‘전설 : 후설’의 대립은 두 가지 부류만 구분된다.

9) 음운 규칙은 입력형과 출력형 및 적용 환경을 일반화할 수 있는 음운 현상을 가리킨다. 그런데 음운 현상 중에는 그러한 일반화가 어려운 것도 적지 않다. 그 결과 소수 변화(minor change)와 같이 규칙의 단계까지 발달하지 못한 음운 변화는 규칙의 변화로 다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규칙 첨가는 없던 규칙이 새로 생기는 변화이다. 이것은 매우 자명하여 가장 흔히 나타나는 변화이기도 하다. 국어사 자료를 통해 중세국어 이후에 구개음화를 비롯한 많은 규칙들이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칙 첨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하나는 처음부터 규칙이 첨가되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규칙이 아니었지만 이후 점차 발달하여 규칙의 단계에 이르는지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음운 변화의 속성상 새로 생기자마자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어휘들을 한 번에 바꾸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즉 단어별로 조금씩 적용이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더욱이 음운 규칙은 그 구성 요소인 입력형과 출력형 및 적용 환경을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렇다고 할 때 처음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을 때는 아직 규칙의 지위를 지녔다고 볼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용 영역이 확대되어 규칙으로 발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sup>10)</sup>

다른 하나는 새로운 규칙과 기존 규칙과의 관계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규칙이 기존 규칙보다 규칙순에서 앞서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그런데 4장에서 상술하겠지만 새로운 규칙은 표면형에 적용된다. 이것은 기존 규칙들의 적용이 완료된 후 새로운 규칙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규칙이 기존 규칙보다 앞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규칙 소멸은 규칙 첨가와 반대로 존재하던 음운 규칙이 사라지는 변화이다. 새로 생기는 규칙이 있으면 그에 비례해서 사라지는 규칙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외로 규칙 소멸의 예는 그리 많지 않다. 대표적인 예는 중세국어 시기에 존재하다가 16세기 이후 사라진 ㄱ-약화를 들 수 있다. 이 외에 ㄱ-구개음화도 많은 방언에서 소멸되었다.

규칙이 소멸하면 적용 환경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 한 형태소

10) 이와 관련해서는 3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내부 또는 하나의 단위로 굳어진 복합어에서는 이전에 규칙이 적용된 형태가 소멸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생산성이 높은 형태소의 결합 과정에서 적용되던 음운 규칙이 소멸하면 규칙이 적용되기 이전 형태로 복원된다. 가령 ㄱ-약화를 보면 중세국어의 ‘물애(沙)’는 형태소 내부 또는 복합어에서 ㄱ-약화가 적용된 것인데, 이런 환경에서는 ㄱ-약화가 소멸된 후에도 ‘ㄱ’이 약화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sup>11)</sup> 반면 ‘알오(알+고, 知)’와 같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ㄱ-약화가 적용된 경우는 ㄱ-약화가 소멸한 후 다시 ‘ㄱ’이 복원되어 ‘알고’로 실현된다.

이처럼 환경에 따라 규칙이 소멸되었을 때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해당 규칙이 기저형의 변화를 일으켰는지의 여부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형태소 내부 또는 한 단위로 굳어진 복합어에 규칙이 적용되면 기저형의 변화를 초래하지만 생산성이 높은 형태소의 결합형에 규칙이 적용되면 기저형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앞서 제시한 예를 보면 ‘물개’에 ㄱ-약화가 적용되면 형태 자체가 ‘물애’로 바뀌지만, ‘알고’에는 ㄱ-약화가 적용되어도 어미 ‘-고’의 기저형이 ‘-오’로 바뀌지 않는다.

규칙 적용 환경의 변화는 규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것을 말한다. 어떤 음운 변화가 계속 적용되면 그에 비례해 규칙의 적용 환경도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이 유형의 변화가 어찌면 규칙의 변화에서는 가장 일반적일지도 모른다.<sup>12)</sup> 중세국어 시기에 일부 제한된 환경에서만 적용되던 자음군 단순화가 이후 근대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적용 환경이 확대되어 현재 예외 없이 적용된다든지, 음절말에서 적용되는 평파열음화가 15세기에는 ‘ㅅ’에 적용되지 못하

11) ‘물애’는 이후 유성 마찰음 ‘ㅇ’의 변화 양상에 따라 현대국어의 방언형 ‘모래, 몰래’ 등으로 변화한다. ‘모래, 몰래’ 이외에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물개’는 처음부터 ㄱ-약화를 겪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12) 일단 음운 규칙의 단계에 접어든 이후 겪는 모든 변화는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가 16세기 중엽 이후 ‘ㅅ’ 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경우는 모두 규칙 적용 환경의 변화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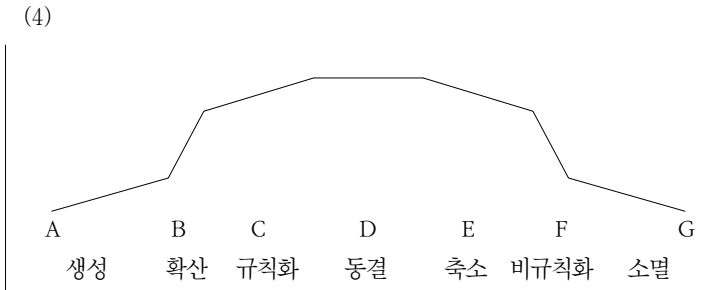
규칙 적용 환경의 변화가 매우 극적인 양상을 보이는 예는 유음 탈락에서 찾을 수 있다. 중세국어의 유음 탈락은 ‘ㄴ, ㅅ’ 은 물론이고 ‘ㄷ, ㅈ, ㅊ’ 과 같은 많은 자음 앞에서도 일어났다. 그런데 현대국어의 유음 탈락은 방언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중앙어를 비롯한 많은 방언에서는 ‘ㄷ, ㅈ’ 앞에서는 유음 탈락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sup>13)</sup> 반면 안동을 비롯한 경북의 몇몇 방언에서는 ‘ㄷ, ㅈ’ 은 물론 ‘ㄱ, ㄴ’ 과 같은 자음 앞에서도 유음 탈락이 일어난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유음 탈락의 적용 환경이 축소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상의 세 가지 규칙의 변화 유형 이외에 재어휘화나 규칙 재배열과 같은 변화를 더 인정하기도 한다. 재어휘화는 음운 규칙이 적용되어 기저형이 바뀌는 경우를 지칭하기 때문에 규칙 자체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규칙 재배열은 4장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음운 변화의 속성상 인정할 수 없는 변화 유형이다. 논리적으로 고려해 보아도 규칙이 변화한다면 규칙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또는 적용 영역이 바뀌는 것 이외의 가능성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규칙 변화의 유형은 (3)에 제시된 세 가지만으로 충분하다.

### III. 음운 변화의 발달 단계

새로 생긴 음운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발달한다. 이러한 발달 단계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3) ‘ㄷ, ㅈ’ 앞의 유음 탈락은 일부 복합어에만 흔적을 남기고 있을 뿐, 용언의 활용형과 같이 생산적인 형태소의 결합 과정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4)에서 특징적인 것은 ‘규칙화, 동결, 비규칙화’ 라는 세 단계를 더 추가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단계를 설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음운 규칙이 처음부터 첨가되지 않는기 때문이다. 음운 변화가 처음 생성되었을 때부터 음운 규칙의 자격을 지닌다면 ‘규칙화’ 라는 단계는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음운 변화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입력형과 출력형 및 적용 환경 등을 일반화할 수 없다. 미약한 세력만을 지닌 채 일부에만 적용되는 음운 변화를 규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음운 변화가 점차 세력을 얻어 가면서 입력형이나 적용 환경이 어느 정도 일반화되었을 때 음운 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음운 변화가 규칙으로 자리잡는 단계를 더 설정할 필요가 있다.<sup>14)</sup>

이와 관련된 단계가 규칙 소멸 과정에서도 일어난다고 생각된다. 규칙이 소멸하려면 더 이상 적용 영역이 넓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단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규칙의 적용 환경이 줄어들

14) 이것은 태풍의 생성 과정과 동일하다. 바다의 수증기가 상승 기류를 이루면서 태풍이 만들어진다고 보지만 상승 기류 수준일 때는 아직 태풍이라고 말할 수 없다. 상승 기류가 점차 발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세력이 되어야만 태풍이라고 할 수 있다. 음운 변화도 마찬가지이다.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음운 규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더 발달하여 어느 정도의 일반화가 가능할 때 비로소 음운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면서 규칙으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리는 단계도 거칠 것이다. 이처럼 ‘규칙’의 개념을 고려하여 음운 변화의 발달 단계를 더 세분하면 (4)와 같은 형태가 된다.

생성은 음운 변화가 처음 출현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음운 변화는 일부 단어에만 적용된다. 적용 조건이 동일하다더라도 단어에 따라 적용 여부에 차이가 난다. 이러한 양상은 구개음화를 비롯하여 국어의 많은 음운 변화가 생성 초기에 보여 주는 바이다. 음운 변화의 초창기에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어휘는 일반적으로 빈도수가 높다. 빈도수가 높을수록 음운 변화에 노출될 기회가 빈번하므로 적용의 기회도 많아진다.<sup>15)</sup>

음운 변화는 생성된 그 순간부터 확산의 단계로 들어선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음운 변화의 확산은 생성 단계와 명확히 분리되지는 않는다. 확산의 정도는 환경별로 차이가 있어서 가령 형태소 내부인지 또는 경계 사이인지, 문법 범주는 무엇인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음운 변화의 확산은 처음에는 완만하게 일어난다. 그러다가 급격한 확산 단계를 맞게 되는데 이것은 규칙화의 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규칙화는 음운 변화의 입력형이나 적용 환경을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이것은 음운 변화의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규칙화가 일어나기 전의 음운 변화는 개별 어휘별로 적용이 되지만 규칙화가 되면 적용 조건이 일반화되면서 대규모로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규칙화의 단계를 거치면 음운 변화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부분의

---

15) 그러나 빈도수가 언어 변화의 적용에 항상 유리한 조건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빈도수가 높은 단어는 이전 형태에 대한 인식이 강해서 변화에 저항하는 일도 적지 않다. 다만 빈도수에 의한 저항은 음운 변화가 어느 정도 확산된 이후에나 가능하다. 음운 변화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세력이 커져야 음운 변화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음운 변화의 생성 초기에는 빈도수가 음운 변화의 적용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

형태들은 음운 변화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규칙화 단계를 지나면 음운 변화의 적용을 받지 않은 형태들이 적기 때문에 확산 역시 완만해진다. 이것이 (4)의 C-단계이다. C-단계에서 음운 변화의 적용을 받는 것들은 주로 새로 생겨나는 복합어들이나 차용어들이다.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단어들은 대부분 음운 변화의 적용이 완료되었다.

C-단계를 거치면서 세력이 정점에 이른 음운 변화는 계속 그 세력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입력형이 생겼을 때 더 이상 적용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 즉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거나 다른 변화에 의해 새로운 입력형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적용 영역만 유지한 채 더 이상 적용되지 못하는 단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단계를 ‘동결’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의 음운 변화 중 동결의 단계를 거쳤으리라 판단되는 음운 변화에는 몇 가지가 있다. 이 중 으-탈락을 살펴기로 한다.

(5) ㄱ. 나면(나-으면), 알면(알-으면)

ㄴ. 나으면(<나흐면, 낡-으면), 아르면(<알흐면, 앓-으면)

중세국어의 으-탈락은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었다.<sup>16)</sup> 그런데 후대에 후음 탈락이라는 변화가 생성되면서 새로이 어간의 모음 또는 ‘ㄹ’과 어미 초의 ‘으’가 결합하는 환경에서는 으-탈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후음 탈락이 생성되기 전에 이미 으-탈락이 동결되어 후음 탈락에 의한 새로운 입력형이 생겨도 적용되지 않음을 잘 보여 준다.

동결 단계에 있는 음운 변화는 새로 적용 영역을 확장하지는 못하더라도 기존의 적용 영역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는 적용 영역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늘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적용 영역이

16) 높임의 선어말 어미 ‘-(으/으)시’의 ‘으/으’만은 예외적으로 ‘ㄹ’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탈락하지 않았다.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음운 변화가 동결되는 것은 곧 음운 변화의 축소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음운 변화의 축소 과정은 음운 변화의 확산 과정과 대칭적이다. 처음에는 음운 변화가 아직 규칙의 자격을 지니므로 축소가 완만하게 일어난다. 이 과정이 지속되면 입력형이나 적용 환경을 일반화하기 어려운 비규칙화의 단계에 이른다. 이때부터 음운 변화는 더 이상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단어별로 산발적 적용을 보이게 되며 적용 영역도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소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상은 음운 변화가 거칠 수 있는 변천 단계를 세분화하여 최대한으로 보인 것이다. 그런데 모든 음운 변화가 위와 같은 단계를 전부 밟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4)에 제시된 단계를 모두 밟아서 소멸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앞서 규칙 소멸의 예로 제시한 ㄱ-약화조차도 동결의 단계를 거쳤는지 직접적인 확인은 어려울 정도이다. 많은 음운 변화는 (4)의 단계 중 일부만 거친다.

음운 변화는 규칙화의 단계(B)를 거쳤는지의 여부에서 두 가지 부류를 구분할 수 있다. 규칙화 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은 소위 소수 변화(minor change)로서 세력이 매우 미미한 상태로 머문 경우이다.

‘알푼다 > 아푼다(患), 골푼다 > 고푼다(饑)’에서 보이는 ‘ㅍ’ 앞에서의 ㄹ-탈락이나 ‘숨 > 속(裏), 새뱅이 > 새깅이(蝦)’에서 보이는 PK-교체 등은 규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소수 음운 변화의 대표적인 예이다.<sup>17)</sup>

규칙화의 단계를 거친 변화는 소위 다수 변화(major change)에 속한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변화들도 동결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여전히 확산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동결 단계를 넘어 상당히 축소된 경우도 있다. 현대국어의 경음화나 비음동화처럼 예외 없이 강력

17) ‘ㅍ’ 앞의 ㄹ-탈락은 적용 영역이 극도로 좁고 현재 소멸 단계에 있지만 PK-교체는 적용 영역도 좀 더 넓고 여전히 존재한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다.

히 적용되는 음운 현상은 ‘생성-A-B-C’의 단계만을 거친 경우이다. 처음 생성되어 규칙의 단계를 거친 이후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말이든 외국에서 들어오는 차용어이든 경음화나 비음동화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모음 조화나 ㄷ-구개음화는 한때 상당한 세력을 지녔지만 지금은 많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결을 거쳐 축소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ㄱ-구개음화는 모음 조화나 ㄷ-구개음화보다도 더 세력이 약화되어 현재 소멸 직전의 단계까지 와 있다.

한편 소멸을 겪은 음운 변화는 보통 동결(D) 이후의 단계를 서서히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정 자음이나 모음이 음운 체계에서 사라지는 변화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성격의 변화는 C-단계를 거치면 입력형인 음운이 더 이상 음운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론상 동결을 포함한 그 이후의 단계를 거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음운 변화가 겪은 발달 단계는 저마다 모두 차이가 난다. 규칙화의 단계에 이르지도 못한 변화가 있는가 하면 기존 세력을 유지한 채 계속 확산되는 변화도 있다. 또한 이미 소멸을 거친 음운 변화라 하더라도 소멸에 이르는 구체적 단계는 다를 수 있다. 규칙이 되기 전에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규칙이 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 IV. 음운 변화의 적용 층위

음운론에서의 층위란 이론적으로 고안한 가상의 존재이며 연구자에 따라 층위의 성격이나 구조 등에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sup>18)</sup> 그러나 층위를 가정하는 이상 기저 층위와 표면 층위의 두 가지를 설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기저 층위는 기저형이 속한 층위로서 실제 발음

18) 음운론에서의 층위에 대해서는 이진호(2008)의 3.3.2.를 참고할 수 있다.



되는 형태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표면 층위는 표면형이 속한 층위로서 실제 발음되는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국어의 음운 변화가 기저 층위가 아닌 표면 층위에 적용된다는 사실은 유성 마찰음의 변화로 인한 불규칙 용언의 생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 (6) ㄱ. 돕고, 돕는, 도쁘니, 도바 > 돕고, 돕는, 도우니, 도와  
 ㄴ. 짓고, 짓는, 지스니, 지서 > 짓고, 짓는, 지으니, 지어

(6ㄱ, ㄴ)은 각각 ‘빙’ 과 ‘Δ’ 의 변화에 의해 불규칙 용언이 생겨난 것을 보여 준다. ‘빙’ 과 ‘Δ’ 이 변화하기 전의 어간 기저형은 ‘똥-, 짓-’ 으로 설정하는 방법과 ‘똥-, 짓-’ 으로 설정하는 방법 모두가 제안된 바 있지만 어떤 입장을 취하든 기저형이 있는 층위, 즉 기저 층위에서 ‘빙’ 과 ‘Δ’ 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기저 층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면, ‘똥-, 짓-’ 이 기저형일 경우에는 어간의 모든 활용형에 ‘빙, Δ’ 의 약화 또는 탈락이 반영되어야 하고 ‘똥-, 짓-’ 이 기저형일 경우에는 어간의 어떤 활용형에서도 ‘빙, Δ’ 의 약화 또는 탈락이 반영될 수 없다. 그런데 (6)을 보면 표면형에서 ‘빙, Δ’ 이 실현된 활용형만이 ‘빙, Δ’ 의 약화나 탈락을 겪고 있다. 이것은 ‘빙, Δ’ 이 실제로 구현되는 표면 층위에서 음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분명하게 말해 준다.

음운 변화가 표면 층위에서 일어난다는 증거는 다른 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7) ㄱ. 짐:찌(뽕+지), 짐:떠라(뽕+더라), 질머서(뽕+어서), 질믄(뽕+은)  
 > 줌:찌, 줌:떠라, 질머서, 질믄 (幼)  
 ㄴ. 얼:지(얼+지), 얼:더라(얼+더라), 어러(얼+어), 어러서(얼+어서)  
 > 을:지, 을:더라, 어러, 어러서 (氷)

(7ㄱ, ㄴ)은 장모음 ‘ㅣ’ 가 ‘ㅡ’ 로 바뀌는 일종의 모음 상승을 보여

준다. 그런데 이러한 모음 상승은 어간의 모든 활용형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즉 어미의 두음인 모음이 표면에 실현되는 경우에는 모음 상승이 없이 예전의 모음인 ‘i’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은 모음 상승이라는 변화가 있기 이전에 어간의 장모음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단모음으로 실현되고 있었다는 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만약 기저 층위에서 모음 상승이 일어났다면 장모음을 지닌 어간의 모든 활용형에서 모음 상승을 발견할 수 있었겠지만, 표면 층위에서 장모음이 실현되는 경우에만 모음 상승이 일어남으로써 (7)에서 보듯 일부 활용형에 국한하여 모음 상승이 일어날 수 있었다.<sup>19)</sup>

이 외의 다른 음운 변화도 모두 표면 층위에서 적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음운 변화는 표면 층위에 실현되는 표면형을 또 다른 표면형으로 바꾸어 준다. 이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첫째, 새로운 음운 변화가 적용될 때 이형태들 사이의 관계가 왜 복잡해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음운 변화가 표면 층위에 직접 적용되는 이상 새로운 이형태들을 만들어 냈으로써 기존 이형태들과의 관계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지닐 수밖에 없다. 가령 어간의 활용형만 보더라도 음운 변화가 표면 층위에 적용되면 활용형별로 음운 변화의 적용 양상이 달라지며 각각의 활용형들은 음운 변화의 적용 여부에서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형태 관계의 복잡성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6)과 같이 규칙적 교체를 하던 형태소가 불규칙적 교체를 보이게 되는 경우이다. 특히 음운의 합류나 소실에 의해 교체가 새로 나타나면 기존 이형태와 새로운 이형태의 관계는 불규칙적으로 바뀔

19) 이러한 특징은 ‘다:럽따(더럽+다), 다:럽꼬(더럽+고), 다:러워서(더럽+어서), 다:러운(더럽+은) > 드:럽따, 드:럽꼬, 드:러워서, 드:러운’에서 일어난 모음 상승과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더럽’은 첫 음절에 장모음을 지니지만 어간이 2음절이어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해도 단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어간의 장모음이 모든 표면형에 나타나며 모음 상승 역시 어간의 활용형 전체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이형태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공식적 기술이 실제 역사적 변화와는 달라지는 경우이다.

- (8) 츠고(츠+고), 츠도(츠+도), 차서(츠+아서), 차도(츠+아도) >  
차고, 차도, 차서, 차도 (寒, 滿)

(8)은 ‘·’의 변화에 의한 어간 활용형의 변화를 보여 준다. ‘·’가 변화하기 전 어간이 ‘ㅏ’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는 ‘·’의 탈락이 적용된다. 어간말 ‘·’의 탈락은 어간말 ‘ㅡ’의 탈락과 더불어 매우 규칙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가 변화하여 음운 체계에서 사라진 이후에는 더 이상 ‘·’의 탈락이라는 음운 규칙을 공식 음운론에서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차서, 차도’와 같이 ‘ㅏ’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활용형(차서, 차도)은 ‘·’의 탈락 대신 동일 모음 탈락 규칙으로 기술하게 되는 것이다.<sup>20)</sup> 이러한 기술 내용은 ‘차서, 차도’가 겪은 역사적 변화와는 상이한 것이다. (8)과 같은 사례 역시 매우 많은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음운 규칙과 기존 음운 규칙 사이의 순서 문제가 해결된다. 규칙의 변화를 논의할 때 새로 생긴 음운 규칙이 기존 음운 규칙보다 선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King(1969 : 43~45)나 Kiparsky(1982 : 49)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음운 규칙이 기존 음운 규칙보다 늦게 적용되지만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는 새로운 음운 규칙이 기존 음운 규칙보다 먼저 적용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sup>21)</sup>

20) 이 경우에는 ‘ㅏ, ㅑ’로 끝나는 어간 뒤에 ‘ㅏ, ㅑ’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경우 적용되는 동일 모음 탈락 규칙이 우연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서, 차도’를 규칙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만약 동일 모음 탈락 규칙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의 변화 이후 ‘차서, 차도’는 규칙을 이용해 설명할 수 없게 되므로 ‘츠’에서 바뀐 ‘차’는 불규칙 어간에 속했을 것이다.

21) Kiparsky(1982 : 50)에서는 순수 음운론적 동기를 지니지 않은 규칙이 첨가될 때에 한해 기존 규칙보다 새 규칙이 먼저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운 변화가 표면 층위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표면 층위에 존재하는 표면형은 기존의 음운 규칙이 모두 적용되고 난 후에 나오는 형태이다. 만약 새로운 음운 규칙이 첨가되었다고 해도 이것은 항상 표면형에만 적용되므로 다른 음운 규칙보다 먼저 적용되지 못한다. 즉 새로운 음운 규칙은 규칙 순서에 있어서 항상 맨 마지막 위치를 점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규칙 재배열이라는 규칙의 변화 유형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쉽게 이해된다. 이미 2.3.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존 논의에서 다루던 규칙 변화의 유형에는 규칙 재배열이 존재한다. 그런데 어떤 변화를 규칙 재배열로 설명하는 경우는 모두 공통적으로 규칙 재배열이라는 변화가 일어나기 전 단계의 기저 층위와 규칙 재배열이 일어나는 시기의 기저 층위가 동일하다. 즉 규칙 'A→B' 가 있을 때 'A→B' 의 순서로 적용되는 시기의 입력형과 규칙 재배열이 일어나 'B→A' 의 순서로 적용되는 시기의 입력형이 동일한 것이다.

이것은 음운 변화가 표면 층위에 적용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규칙 재배열이 음운 변화인 이상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표면 층위에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A→B' 의 순서로 적용된 출력형에 규칙 재배열이 일어나 'B→A' 의 순서로 다시 적용이 되어야 옳은 것이다. 이처럼 규칙 재배열이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A→B→B→A' 와 같은 규칙 적용 순서를 보인다고 설명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규칙 재배열을 다룬 논의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았다.<sup>22)</sup> 이것은 음운 변화가 표면 층위에서 일어난다는 사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넷째, 음운 변화의 적용 층위는 음운 변화의 입력형이나 출력형이 모두 발음 가능한 단위여야 함을 말해 준다. 음운 변화의 입력형은

22) 사실상 한 형태가 규칙 'A' 와 'B' 에 대해 'A→B→B→A' 와 같은 순서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상상하기 어렵다. 박창원(1990: 428)에서도 바로 이러한 규칙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그 근원에는 음운 변화가 표면 층위에 적용된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곧 변화 이전의 표면 층위에 존재하던 표면형이다. 표면형은 실제로 실현되는 형태이므로 발음이 가능하다. 또한 음운 변화의 출력형은 이전 시기의 표면형을 대체한 새로운 표면형이므로 역시 발음 가능한 단위이어야 한다. 만약 음운 변화의 출력형이 발음 가능한 단위가 아니라면 다시 새로운 변화를 겪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새로운 변화의 입력형이 발음 불가능한 단위가 되므로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다섯째, 음운 변화가 어휘에 따라 점진적으로 퍼져 나간다는 어휘 확산 이론도 음운 변화의 적용 층위를 고려해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 형식적으로 입증된다. 음운 변화가 표면 층위의 표면형에 적용된다는 것은 실제로 실현되는 형태에 음운 변화가 일어남을 뜻한다. 모든 어휘들은 동시에 실현되지 않고 각각 다른 실현 양상을 보이므로 음운 변화도 여기에 따라 어휘별로 다른 적용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자료의 뒷받침을 받지 않아도 음운 변화의 적용 층위에 비추어 볼 때 어휘 확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이 자명해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운 변화가 표면 층위에서 일어난다는 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음운 변화의 적용 층위는 이 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우선 어떤 변화가 음운 변화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현대의 많은 방언에서는 체언의 어간말 자음군이 변화를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닭이, 닭을, 닭에’가 발음상 ‘닥이, 닥을, 닥에’로 바뀌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을 자음군 단순화라는 음운 변화가 직접 적용된 결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설명은 적어도 음운 변화의 적용 층위를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말에 자음이 두 개 놓일 때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닭이, 닭을, 닭에’는 표면 층위에서 ‘달기, 달글, 달게’로 실현되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닭이, 닭을, 닭에’ > ‘닥이, 닥을, 닥에’를 음운 변화의 결과로 볼 수는 없다.<sup>23)</sup>

다음으로 음운 변화의 공식이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빙 > w’ 라는 단일 공식이 지닌 문제점과 관련된다. ‘바, 뱀’의 경우에는 ‘나, 뉘’로 변화하므로 ‘빙 > w’라는 변화 공식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브, 브’가 ‘나, 뉘’로 바뀌는 경우이다. ‘나, 뉘’에서는 ‘w’를 찾을 수 없다. ‘빙 > w’라는 단일 공식을 유지하면 ‘브, 브’는 먼저 ‘w+·, w+·’라는 이중모음으로 바뀐 후 ‘나, 뉘’로 변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w+·, w+·’라는 이중모음은 당시에 실제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음운 변화가 표면 층위에 적용되는 이상 음운 변화의 입력형과 출력형은 모두 당시에 실재하는 표면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브, 브’가 ‘나, 뉘’로 변화하는 것을 ‘빙 > w’라는 공식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어떤 음운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정밀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세국어 치음 ‘스, 츠, 썸’은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조음 위치가 경구개음으로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엄밀히 보면 그리 정확한 것은 아니다. ‘스, 츠, 썸’의 조음 위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벌써 이 자음들은 음절의 초성에만 올 수 있었고 음절의 종성에서는 ‘스’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스, 츠, 썸’의 조음 위치 이동은 초성에서만 일어났던 사건일 뿐이다.<sup>24)</sup> 이것 역시 음운 변화가 표면 층위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통해 쉽게 증명할 수 있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국어 음운사 연구와 관련된 세 가지 기본 주제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 주제들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논의가 없지 않았지만

23) 실제로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이 변화를 유추와 관련된 비음운론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4) 현대국어 음운론에서 경구개음인 ‘스, 츠, 썸’이 음절 종성에 올 때 평파 열음화를 거치면서 조음 위치까지 치조음으로 바뀌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요인이 배경을 이룬다.

보편적인 언어 변화 이론의 측면에서 접근했을 뿐이어서, 국어 자료를 통한 충분한 검토도 부족했고 국어에 적용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언급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글에서는 되도록 국어의 실정에 맞춰 국어의 예를 가지고 논의하고자 했다. 중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운 변화는 음운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음운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음운들이 맺고 있는 대립 관계나 음운 규칙을 바꾸어 준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음운 변화를 바라보는 이론의 변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둘째, 음운 변화는 처음 생겨난 이후 발달 단계를 밟는다. ‘규칙’의 개념을 고려하면 음운 변화의 발달 단계는 상당히 세분할 수 있으며 ‘규칙화’의 단계를 거치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해진다. 또한 음운 변화에 따라 거치게 되는 발달 단계가 상이하다. 어떤 음운 변화는 생성된 이래로 끊임 없이 확산 과정에 있는가 하면 어떤 음운 변화는 생성되고 얼마 안 있어 소멸하기도 한다.

셋째, 음운 변화가 적용되는 층위는 표면 층위이다. 이것은 음운 변화가 실제로 발음되는 형태에 적용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즉 기존의 실제 발음형에 음운 변화가 적용되어 새로운 실제 발음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음운 변화의 속성이나 영향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 걸쳐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참고문헌

- 강창석(1989), 현대국어 음운론의 허와 실, 《국어학》 19, 국어학회, 3~40.
- 고영근(2005), 형태소의 교체와 형태론의 범위-형태음운론적 교체를 중심으로-, 《국어학》 46, 국어학회, 19~52.
- 곽충구(1994),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20세기 러시아의 Kazan에서 간행된 문헌 자료에 의한-》, 태학사.
- 권인환(1998), 《조선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태학사.
- 김경아(2000), 《국어의 음운표시와 음운과정》, 태학사.
- 김방한(1988), 《역사-비교언어학》, 민음사.
- 김성규(1988), 비자동적 교체의 공시적 기술, 《관악어문연구》 13, 서울대 국문과, 25~44.
- 김성규(1989), 활용에 있어서의 화석형, 《주시경학보》 3, 탑출판사, 159~165.
- 김완진(1971), 《국어음운체계의 연구》, 일조각.
- 김완진(1972),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이른바 장모음의 경우-, 《동아문화》 11,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271~299.
- 김주필(2012), 《국어의 음운현상과 음운변화 연구》, 역락.
- 김 현(2006), 《활용의 형태음운론적 변화》, 태학사.
- 박창원(1990), 음운 규칙의 통시적 변화, 《강신항교수 회갑기념 국어학 논문집》, 태학사, 427~438.
- 박창원(1991), 음운 규칙의 변화와 공시성,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297~322.
- 박창원(1997), 연구방법과 변화유형, 《국어사연구》, 태학사, 25~63.
- 백두현(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 소신애(2009), 《음운론적 변이와 변화의 상관성》, 태학사.
- 송 민(1986), 《전기근대국어 음운론 연구》, 탑출판사.
- 송철의(1987), 15세기 국어의 표기법에 대한 음운론적 고찰, 《국어학》 16, 국어학회, 325~360.
- 송철의(1993), 언어 변화와 언어의 화석,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 지성사, 352~370.



- 신승용(2003), 《음운 변화의 원인과 과정》, 태학사.
- 이기문(1977),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 이기문(1979), 중세국어 모음론의 현상과 과제, 《동양학》 9,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3~36.
- 이동석(2002), 국어 음운 현상의 소멸과 변화에 대한 연구, 고려대 박사 학위논문.
- 이병근(1979),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탑출판사.
- 이승녕(1954), 15세기의 모음체계와 이중모음의 Kontraktion적 발달에 대하여, 《동방학지》 1,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331~432.
- 이승재(1983), 재구와 방언분화-어중 ‘시’ 류 단어를 중심으로-, 《국어학》 12, 국어학회, 213~234.
- 이진호(2006), 음운 규칙의 공시성을 바라보는 시각, 《국어학》 47, 국어학회, 39~63.
- 이진호(2008), 《통시적 음운 변화의 공시적 기술》, 삼경문화사.
-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태학사.
- 정인호(2006), 《평북방언과 전남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태학사.
-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 출판부.
- 최명옥(1985),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p-, s-, t- 변칙동사를 중심으로-, 《국어학》 14, 국어학회, 57~97.
- 최명옥(1988), 국어 Umlaut의 연구사적 검토-공시성과 통시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65, 진단학회, 63~80.
- 최전승(2004), 《한국어 방언의 공시적 구조와 통시적 변화》, 역락.
- 한영균(1985), 음운변화와 어휘부의 재구조화-순경음 붕의 경우-, 《관악어문연구》 10, 서울대 국문과, 375~402.
- 한영균(1988), 비음절화규칙의 통시적 변화와 그 의미, 《울산어문논집》 4, 울산대 국문과, 1~26.
- 허 응(1985), 《국어 음운학-우리말 소리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 Baldi, P. & Werth, R. N. eds.(1978), *Readings in Historical Phonology-Chapters in the Theory of Sound Change-*, Pennsylvania State Univ. Press.
- Fischer-Jørgensen, E.(1975), *Trends in phonological theory - a historical introduction*, Akademisk Forlag.

- Goldsmith, J. ed.(1995), *The Handbook of Phonological Theory*, Basil Blackwell.
- Hock, H. H.(1986), *Principles of Historical Linguistics*, Mouton de Gruyter.
- Jeffers, R. & Lehiste, I.(1979), *Principles and methods for historical linguistics*, The MIT Press.
- King, R. D.(1969),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Prentice-Hall.
- Kiparsky, P.(1982), *Explanation in Phonology*, Foris.
- McMahon, A.(2000), *Change, Chance, and Optimality*, Oxford Univ. Press.
- Wang, W. S-Y.(1969), Competing Changes as a Cause of Residue, *Language* 45-1, 9~25.